봉건주의 무너뜨린 고승의 리더십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연재

③ 부탄의 국조 샵둥나왕남걜



샵둥나왕남걜을 형상화한 조각상.



10대 샵둥나왕남걜과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부탄의 국조 샵둥나왕남걜과 제자들을 그린 대형괘불. 매년 열리는 국가행사인 푸나카축제서는 샵둥의 괘불을 일반에 공개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린다.

부탄왕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부탄이 '티베트불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여전히 많은 한국인 가이드와 비전문가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이 왜곡돼왔다. 물론 큰 줄기에서 따져볼 때 '티베트불교'와 '부탄불교'의 뿌리는 같다. 그러나 16세기부터 부탄은 고유한 불교건축·음악·미술·조각 등 티베트불교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부탄은 과거 티베트 군대가 침공한 역사도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면 티베트불교와 부탄불교의 차이는 바로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차이와 매우 흡사하다. 한반도에 대승북방불교의 문화가 전해지고, 한국불교의 주 수행법인 간화선 역시 중국 송나라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한국불교의 뿌리는 중국불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이뤘고, 나아가 유구한 한국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티베트를 떠난 나왕남걜

북인도·네팔·시킴·라다크 등의 사원에 가면 불단에 여지없이 티베트불교의 수장격인 달라이라마 존자 사진이 모셔져 있어 많은 참배객의 귀감이 된다. 하지만 부탄을 방문해본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자. 부탄 전역의 모든 사찰에는 '달라이라마 존자' 사진이 없다. 대신 부탄의 모든 사찰에는 멋진 턱수염을 가진 스님 존상을 모시고 있다. 바로 부탄의 국조인 샵둥나왕남걜(Zhabdrung Ngawang Namgyel) 스님이다.

부탄을 둘러보면서 난해한 발음의 수많은 고유명사를 들었다 하더라도 부탄의 국조인 샵둥나왕남걜을 기억한다면 이미 부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 북인도, 네팔, 시킴, 티베트, 몽골 등 히말라야 지역은 각 지역별 영주들이 다스리는 봉건주의 사회였다. 이 시대는 지역별 영주들의 권력다툼이 한창인 시절이었고, 히말라야의 소왕국 부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별 도토리 키재기식의 고만고만한 권력을 가진 영주들이 다스리던 곳이었다. 16세기에 한 스님이 이곳에 당도하기 전까지는.

1594년 금강승불교의 한 종파인 둑빠까규파의 법왕으로 추앙된 나왕남걜(Ngawang Namgyal)은 티베트 라룽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존경받던 스님이었다. 어느 날 나왕남걜은 꿈을 꾸는데 까마귀 모습을 한 호법신장이 나타나서 어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기를 재촉한다. 나왕남걜은 당시 타 종파에 의해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까마귀로 분한 호법신장의 조언에 따라 라룽지역을 떠나 지금의 부탄의 가사(Gasa)지역에 다다른다. 당시 그의 나이 23세였다. 샵둥(Zhabdrung: 나왕남걜을 높여서 부르는 칭호)은 부탄지역에 오자마자 지역민들의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게 되었으나 그의 존재를 껄끄러워 하던 티베트에서 부탄지역으로 군대를 보내 스님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대제국이었던 티베트의 군인과 군장비 수가 압도적이었으나 티베트에선 볼 수 없었던 부탄의 천연밀림 속에서 티베트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부탄의 역사상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적은 티베트에 의한 3회뿐이지만 전부 국경요새에서 막혀버리고 말아 부탄은 단 한 번도 본토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나라로 기록된다. 이때부터 샵둥은 부탄 주요 위치에 부탄에만 있는 형태의 요새·성이자 사원인 '종(Dzong)'을 건설하게 된다. 샵둥이 세운 부탄 최초의 종은 1629년 팀푸 근교에 있는 셈토카종(Semtokha Dzong)으로서 현재 부탄 전역에 세워져있는 모든 종들의 예시가 되고 있다.

둑빠까규 법왕 추대된 샵둥
타 종파 위협 피해 부탄으로
티베트군 물리치고 제도 다져
정치·종교 이원화 국가 성립

오늘날 부탄이 있기까지

샵둥이 세운 방어에 특화된 종에도 불구하고 티베트는 지속적으로 부탄을 침공했다. 침공명분은 바로 둑빠까규파의 법왕인 샵둥이 티베트에서 가져온 '랑중까사르파니(Rangjung Kasarpani)'라고 불리는 금강승밀교의 성물 때문인데, 샵둥이 이를 푸나카종에 모셔놓고 있었다. 티베트군은 이 성물을 다시 가져온다는 명분하에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여 푸나카 계곡을 넘어 부탄을 침공한다.

수적으로 열세인 샵둥은 푸나카종 내에 있던 부탄군인들을 정문 밖으로 종을 둘러싸 행진하게 하고, 후문으로 들어가 다시 정문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수비대뿐이었지만 이 행진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푸나카종 내에 엄청난 수의 군인이 있다는 인식을 티베트군에게 심는 효과를 주었다.

샵둥이 두 번째로 사용한 작전은 가짜 성물을 만들어 포추강에 던져버린 것이다. 푸나카종 옆에는 빠른 유속으로 흐르는 포추강과 모추강이 있다. 티베트군은 그 모습을 보고 성물이 영원히 유실됐다고 믿었다. 결국 탈취해야할 성물이 없어지고,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 부탄군으로 인해 티베트군은 철수한다. 물론 성물은 샵둥의 소매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뮤지컬화 되어 매년 열리는 푸나카축제서 오페라 형식으로 행사 대미를 장식한다.

샵둥은 부탄에 자리 잡고 티베트군의 침공을 막아내면서 현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는 '종'이라는 튼튼한 수비요새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불교 계율에 입각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만들어 국가재정을 강하게 했다. 또한 부탄 정치의 밑바탕이 된 '최시(Choesi)' 제도를 적용한다. 최시는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같이 정치와 종교의 수장을 동일 인물로 하지 않고, 이원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샵둥은 둑데씨(Druk Desi)라 불리는 총리를 정치 수장으로, 제켄포(Je Khenpo)라 불리는 국사스님을 종교 수장으로 임명했다.

30년간 샵둥은 부탄지역의 혼란스러운 권력다툼을 자비와 지혜로 감화시키고, 봉건주의의 부탄을 오늘날 국경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각 지역의 색깔을 고려한 올바른 법 제정, 강력한 체제 등을 정비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다.

하지만 1651년 4월 30일 부탄 건국의 아버지 샵둥나왕남걜은 입적했다. 절대적인 존경과 흠모를 받던 샵둥의 입적은 큰 충격이었다. 이에 샵둥의 두 상좌는 입적을 알리지 않고, 긴 명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건국 초기 많은 혼란과 호시탐탐 침공을 노리던 티베트군에게 구실을 줄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렇게 샵둥의 입적은 명상이라는 이름아래 58년간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환생을 통한 샵둥의 전생은 현재 10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샵둥나왕남걜은 위대한 정치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수행력 깊은 고승이었고, 학자이자 작가, 예술가이기도 하다. 끝없는 자비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시 샵둥을 만난 서양인의 기록에 의하면 "샵둥은 단순히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길 원할 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자유를 가지길 바라는 위대한 리더다"고 전한다.

21세기 불확실성이 가득 찬 이 시대에, 국가정책이 대부분 자비보다 경제논리에 의해, 협력보다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요즈음, 샵둥나왕남걜의 자비와 지혜를 기초로 한 통합주의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귀감이 된다.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운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봉 천장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행

천년도량 천장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입 제 일 :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단양 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천장사
H·P 010-5960-2085